

산지에서 식탁까지 올바른 식문화를 선도하는 조인그룹을 소개합니다.

안영태(Young-Tae Ahn)

조인그룹 R&D 부문

조인그룹은 계란생산, 유통, 가공 등 계란사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합한 차별화된 인프라와 경영 노하우를 토대로 국내 계란유통의 대표적 B2B 전문 업체로 성장한 국내 최대 계란전문기업이다.

조인그룹은 1979년 8월 서울 내곡동 강남부화장으로 시작하여, 1982년 용인농장 및 용인부화장을 건립하고 부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1985년 송탄육성농장, 1987년 송탄농장, 1989년 둔포농장, 1993년 송탄 제2부화장 등 육용종계장 및 부화장을 건립하여, 본격적으로 종계 및 부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93년 국내 최초 영양란 생산, 1999년 국내 최초 자연방사 유정란 생산 그리고 2010년 국내 최초 등급계란 월 1,000만 개를 달성하여, 국내 계란생산 및 유통에 있어 선두주자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월 약 7,000만 개, 연간 약 9억 개를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헬리코박터균 항체 함유 닥터IgY 개발, 2006년 녹십자 백신 개발 사업자 선정, (주)하림과 공동프로젝트 추진[(주)조하 설립], 2008년 CJ 제일제당과의 브랜드란 사업강화 등 국내 식품, 축산 그리고 제약사들과 다양한 MOU를 통해 연구 및 제품개발관련 협업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계란의 품질 향상과 고객 신뢰 구축에도 노력하여, 2000년 경기도 지사가 보증하는 G마크 인증상품으로 선정되어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증 받은 바 있으며, 2006년부터는 업계 최초 등급계란 정보시스템을 시행하여 고객이 계란에 적힌 고유번호를 인터넷 홈페이지(등급계란정보서비스)에 입력하면 계란의 항생제 잔류검사, GP센터정보, 등급판정, 포장일자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투명한 유통과정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다.

2007년부터는 음성에 난가공공장을 완공하여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등 알 가공품 생산을 시작으로, 계란을 활용한 장조림, 계란찜, 계란구이 등 HMR 사업으로 확대하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 이외에도 2015년에는 충남 홍성에 100억 원을 투자해 자동화 온실재배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첨단 농장을 세워, 토마토 온실재배를 하고 있다. 같은 해 수산사업(장어)에 진출하였으며, 2016년 고창 양만장을 완공하고, 추가로 3곳의 양만장을 완공해 연간 500~700톤을 생산하는 장어 양식업도 시작해 축·농·수산식품 전반에 걸쳐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Dr. Young-Tae Ahn
 Director, R&D Division, 91, Bokjeong-ro, Sujeong-gu, Seongnam 13112, Korea
 Tel: +82-31-280-7700
 Fax: +82-31-695-0347
 Email: ahnyt09@joinbio.co.kr

조인그룹 현황



1. 축산식품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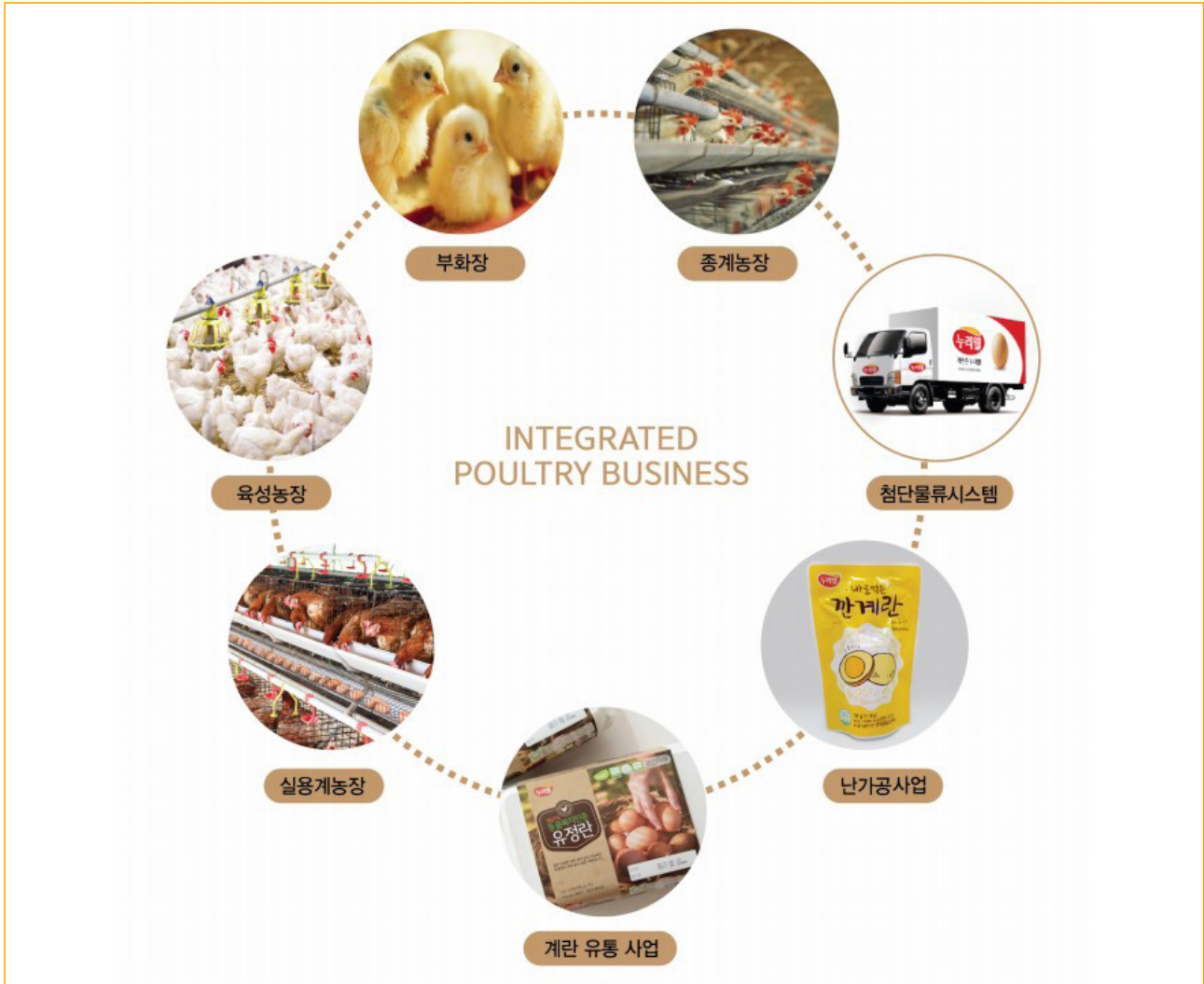
생산(농장)에서부터 가공까지 계열화하여 고객의 식탁까지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 제공

1979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병아리 부화부터 계란의 생산과 이를 활용한 식품제조, 유통 등 고객의 식탁에 제품이 올라가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부화사업

국내 양계산업을 선도해온 조인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Lohmann lite+(산란계)와 Ross(육용계)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Lohmann Lite+는 탁월한 산란능력, 상품성 그리고 월등한 경제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생산능력은 산란계 월간 120만 수와 육계 월간 200만 수 등, 연간 5,000만 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평택, 용인 그리고 홍성부화장에서 산란·육용·삼계 종계사육 및 병아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조인그룹 계란사업



2) 사육사업

최첨단 설비를 갖춘 농장을 직접 운영하여 체중관리, 점등관리, 예방접종, 차단방역 등 엄격한 사양관리 하에 계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방역시스템 하에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 높은 품질을 갖추기 위해, 직영 산란종계농장 운영 이외에도 엄격한 닭 사양관리시스템 적용, 자체 사료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사료 급이 그리고 콜드체인시스템에 의한 선도 유지 등을 실행해 오고 있다. 또한 산란기간 중 항생제, 착색제, 산란촉진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3無 원칙을 통해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산란계, 동물복지, 백신란 및 메추리 관련 자체 20여 사업장을 운영하여 산란계 230만 수와 메추리 310만 수를 사육하고 있다. 그리고 조인 시그니처 제품인 백색란은 산란계 65만 수에서 연간 189백만 개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최대로 백색란을 생산하고 있다.

조인그룹 직영 농장 규모

축종	품종	농장수	사육수수		총 사육수수
산란계	실용계	8개 (자가 7개)	육성	436,000	2,183,000
			성계	1,747,000	
	백신란	2개 (자가 2개)	육성	78,000	211,000
			성계	133,000	
	유정란	3개 (자가 3개)	육성	120,000	316,000
			성계	196,000	
메추리	메추리	3개 (자가 3개)	육성	853,000	3,479,000
			성계	2,626,000	
산란종계	산란종계	2개 (자가 2개)	성계	80,000	80,000
육용종계	육용종계	1개 (자가 1개)	성계	96,000	96,000
육성	실용계	4개 (자가 4개)	육성	1,105,000	1,105,000
	종계	2개 (자가 2개)	육성	90,000	90,000
부화장	부화	3개 (자가 3개)		1,215,000	1,215,000

3) 비료 사업

옥토바이오(경기도 여주, 평택), 옥토엔자인(충남 천안), 그리고 태림(충남 태안, 충북 단양) 3업체에서 계열사 농장에서 나온 무항생제 계분을 활용하여 토양 개량, 지력 향상 그리고 활착 촉진에 도움을 주는 우수한 가축분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업체로, 농가에서 비료 구매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토양을 살리는 환경 친화 비료 생산에 앞장 서고 있다. 그리고 제품마다 EM미생물을 접종하여 토양에서 작물이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유일의 우수한 계분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퇴비 생산능력은 옥토엔자인 성환공장 연간 22,000톤, 옥토바이오 여주공장 연간 7,500톤, 옥토바이오 청북공장 연간 12,000톤, 태림 단양공장 연간 10,000톤 그리고 유기질비료는 태림 태안공장 연간 10,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4) 생란 유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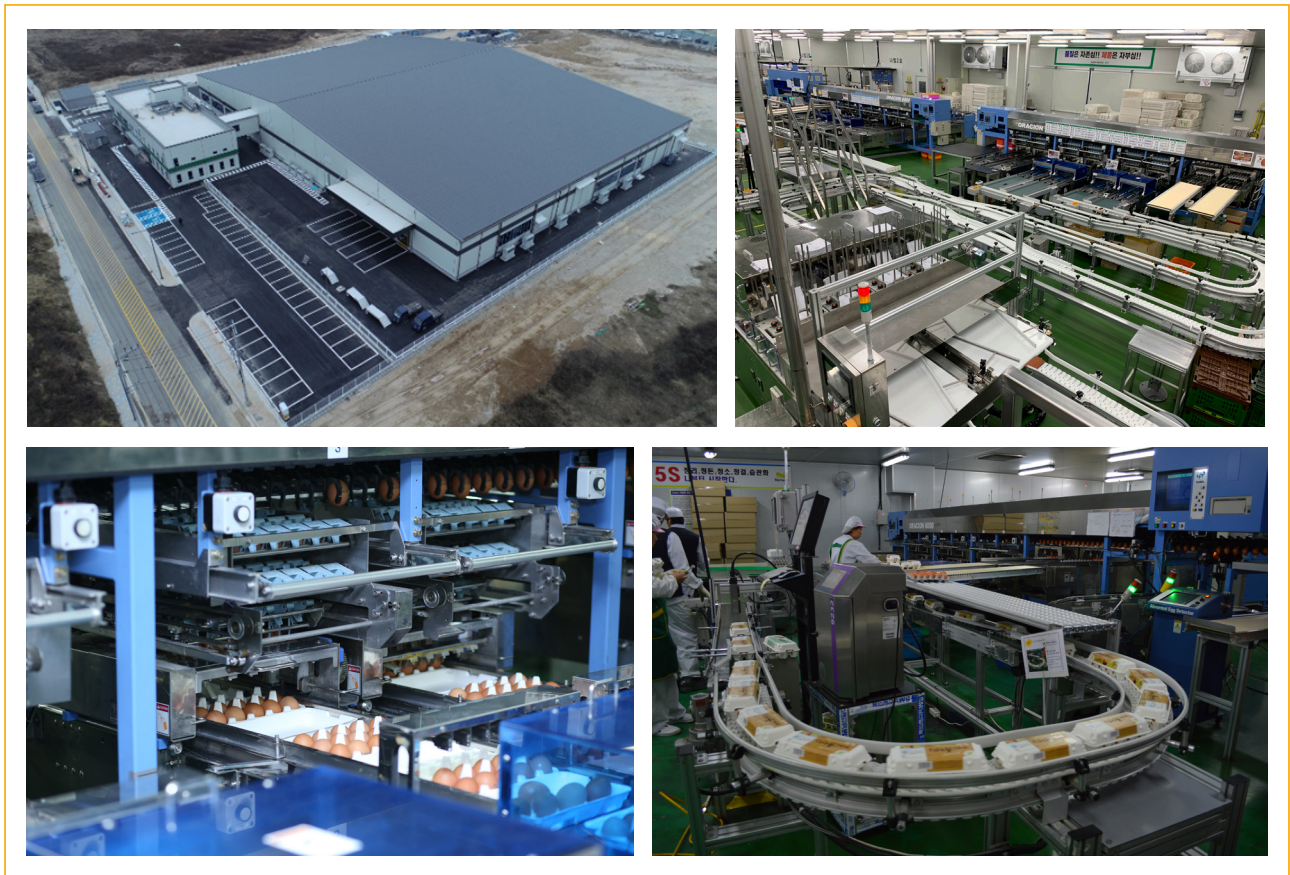
신선함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계란전문 물류시스템과 HACCP 인증을 받은 과학적인 선별 포장시스템으로 고객에게 보다 더 고품질의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장에서 집란한 계란을 당일 GP(Grading Packing) 센터로 입고하여 세척, 자동선별, 포장과정 등을 거쳐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 및 외부 계약농장을 통해 연간 9억 개 계란을 유통하여 국내 B2B 유통업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B2C 확대를 위한 강남농장 NB 브랜드를 런칭하였다.

계란의 선별포장 표준공정도



성본 GP(Grading Packing) Center 외부 전경 및 내부 설비



2022년 5월에 충북 성본산업단지 약 1만 평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자하여 통합 계란유통센터를 신설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계란 및 가공식품의 포장·생산·유통을 전문화하였다. 기존에 운영하던 용인 GP와 서이천 GP를 하나로 합친 성본 GP는 국내 최대 통합 GP로, 선별기 4대로 월 4,20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다.

5) 식품사업

자체 생산한 안전한 계란으로 최첨단 설비를 통해 계란가공품 및 다양한 HMR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우수한 식품 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한 종합식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인 음성공장과 계열사인 세양(경기도 안성)에서 액란, 가공란(구운란, 반숙란, 훈제란, 염지란 등) 그리고 HMR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음성공장은 국내 최대 액란과 염지란(간계란, 간메추리알)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염지란은 국내 MS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월 액란 300톤 이상, 가공란(간계란, 간메추리알, 반숙란, 구운란, 훈제란 등) 600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반숙란은 3개 라인으로 일 10만 개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알가열성형(계란찜, 에그스프레드, 스크램블드 에그, 계란지단 등) 관련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품질 차별화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 살균 전란액, 살균 난황액, 살균 난백액 그리고 비살균 전란액이 있으며, 알가공품으로 간계란, 간메추리알, 구운란, 훈제란, 반숙란 등이 있다. 그 외에 HMR 제품으로 에그스프레드, 스크램블드 에그, 장조림, 계란찜 등이 있다.

음성공장 외부 전경 및 내부 설비



세양은 생란유통 및 계란가공식품 분야의 선도업체로, 동중업체 최초 HACCP(2007년)과 LOHAS(2008년)를 획득하고 ISO22000 인증으로 사육 및 가공판매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계란가공 제품생산 능력을 보유하여 구운란, 훈제란, 반숙란, 계란말이, 지단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제품

<p>생란 / 메추리알</p>  <p>햇살가득 동물복지인증 유정란 (15개입 (1,785)) 동물복지 백색유정란 (20개입 (1,545)) 알맹이가 텁글맹글한 계란 (15개입 (905) 10개입 (605))</p> <p>신선 동물복지 유정소란 (10개입 (445)) 프래쉬 에그 (10개입 (605)) 무항생제 인증 유정란 (15개입 (785))</p> <p>신선한 계란 (4개입 (105) 6개입 (117)) 신선한 완알 (7개입 (57)) 유정란 (30개입 (1,565))</p> <p>동물복지 유정란 (30개입 (1,565)) 특소 1등급란 (한입 30개입 (1,805) 한입 30개입 (1,595)) 왕란란 (30개입 (2,045))</p> <p>일란란 (한입 30개입 (1,805) 한입 30개입 (1,565)) 메추리알 (16개입 (251))</p>	<p>간계란 / 간메추리알</p>  <p>간계란 (500g 1kg 3kg) 간메추리알 (270g 500g 1kg 3kg) 유정란 간메추리알 (500g) 연꽃간메추리알 (1kg)</p> <p>액상계란</p>  <p>난백액 (1kg) 난황액 (1kg) 전란액 (1등급) (1kg) 전란액 (1kg 3kg 1.5kg) 전란액 (국합용) (1kg)</p> <p>알가열성형</p>  <p>계란우라이 (300g (45g X 20개입)) (1kg) 고형지단재 (1kg) 계란스크램블 (1kg) 계란찜 (2.5kg)</p>	<p>구운란 / 훈제란 / 반숙란</p>  <p>참나무 훈제란 (2개입 (65) 25개입 (255)) 반란이 (4개입 (195) 5개입 (155)) 동물복지 유정 반란이 (30개 (185) 15개 (95)) 공란이 (70g (2개입))</p> <p>조미계란 / 조미메추리알</p>  <p>바로먹는 간계란 (75g (2개입)) 바로먹는 메추리아 (25g (2개입)) 바로먹는 메추리아 유정란 (25g (2개입))</p> <p>장조림</p>  <p>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25g) 메추리알 장조림 (35g)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 (40g (4개입))</p> <p>가정간편식 (HMR)</p>  <p>에그샐러드 (200g 1kg) 에그프리타 (240g 1kg) 계란찜 (사우, 김치, 허파) (150g)</p>
--	--	--

2. 농산식품사업부문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품질과 안전한 농산물 공급

산들목(경기도 이천)은 2016년 3월 설립한 첨단 친환경 유통센터로, 선진 생산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 가공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직영 농장 약 18ha 그리고 협력농장 약 35ha에서 40여 종이 넘는 각종 엽채류, 근채, 과채 그리고 양채류 등을 생산, 서울 경인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중간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여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에 신선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일 2만 봉 생산/포장 규모를 갖추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엽채류(상추, 양배추, 배추, 케일, 샐러리, 시금치, 썬갓 등), 근채류(무, 당근, 우엉, 도리지, 더덕, 연근 등), 양채류(양상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등), 과채류(오이, 토마토, 호박, 가지 등), 조미채류(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컷채소) 등이 있다.

옥토&자인(충남 홍성)에서는 유리온실의 첨단설비 및 생산기술로 최고 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며, 옥토바이오 부설 농업연구원의 신품종 재배 실험,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고압나트륨등(HPS) 설비를 통해 겨울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Semi-Closed 온실 형태를 통한 내부 환경 최적화 설비를 활용하고 있다. 온실 외부는 직사광선을 최소화하고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산광유리로 둘러싸여 있고, 환경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난방, 환기, 탄산가스 공급, 양액 공급 등을 조절하고 있다. Ty 트러스트(네델란드) 품종의 토마토 연간 생산량은 1,720톤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단위 생산량(189kg/평)을 나타내고 있다.

유리온실 외부 전경 및 내부 설비



싱그람(경북 문경)은 무를 활용하여 단무지류, 짬무, 피클 등의 절임식품을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이다. 1공장은 연간 생산능력 15,000톤으로 절임류(단무지, 짬무, 치킨무 등) 그리고 2공장은 연간 생산능력 700톤으로 절임류, 조림류, 반찬류, 볶음류, 피클류를 생산하고 있다.

3. 수산식품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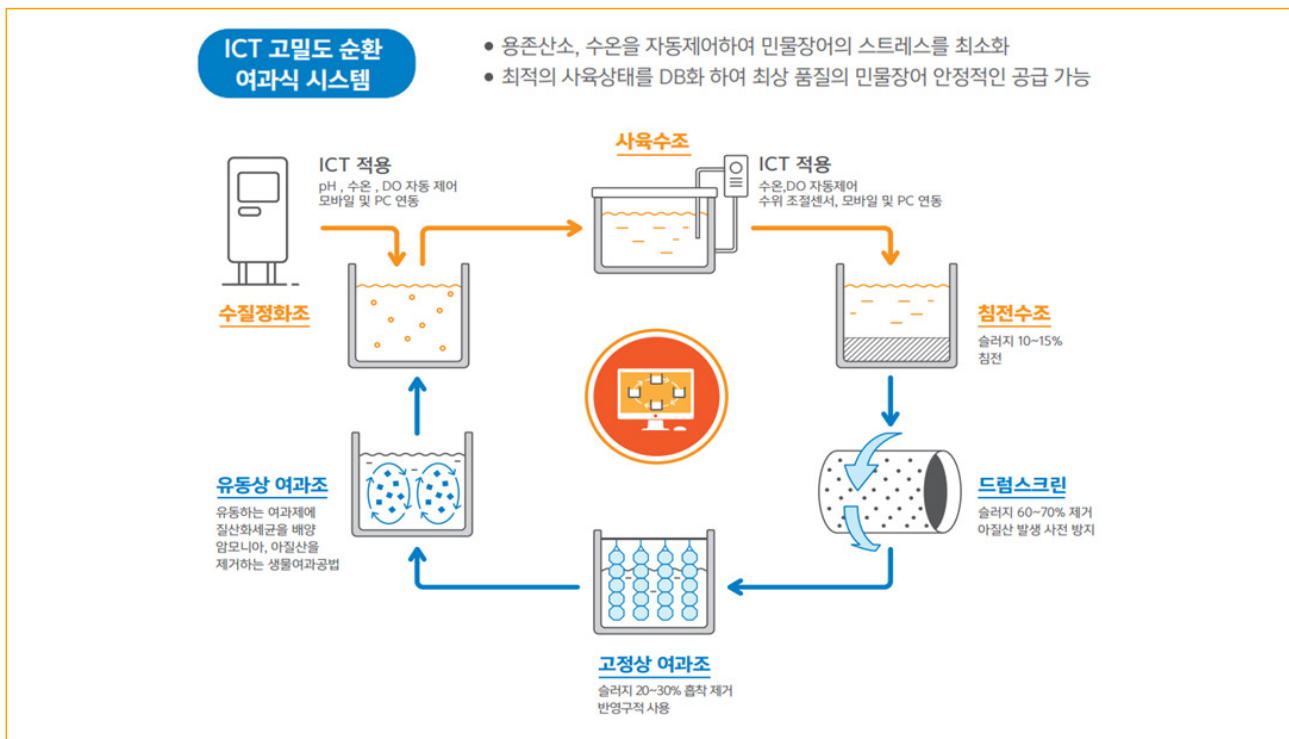
수산양식 Know-how와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선진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믿고 즐길 수 있는 수산식품 제공

전라북도 고창에 연간 6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대규모 첨단 시설을 갖춘 자체 양만장[고창 양만장 2,840m² (약 860평)과 월산 양만장 25,258m²(약 7,654평)]을 운영하여 우수한 품질의 민물장어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특히 장어 사육에 가장 중요한 수질의 용존산소량, pH, 수온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실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사육상태도 DB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고품질의 장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고밀도 순환여과식 시스템 운영으로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하여 질병, 수온 등의 환경관리도 최적화하고 있다. 민물장어 중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함이 뛰어난 국산 100% 자포니카종(Anguilla Japonica)을 연간 600톤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손질장어 및 양념(복분자/테리야끼맛) 가공제품으로 수산 HMR 시장 확대 추진하고 있다.

고창 양만장 외부 전경 및 내부 설비



ICT 고밀도 순환여과식 시스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먹거리

조인은 2020년에 축산업계 최초로 2회 연속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을 받았다. 소비자 중심 경영의 실천을 위해 2015년부터 자사 브랜드 '누리웰'의 공식 블로그인 '누리웰의 계란연구소'를 개설하고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제품, 영양 성분 및 섭취 등과 관련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동시에 체험단을 운영하며 꾸준히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제품 문의 및 불만 접수 시 이를 적극 수렴하여 제품개발 프로세스에 반영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청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종계 관리, 집란한 계란의 신선도 관리, 세척, 자동선별, 포장 등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가장 신선한 상태로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2021년 Protein JOIN 선포

조인은 지난 43년간 사용하던 CI(Corporate Identity)와 BI(Brand Identity)를 새롭게 변경하고 종합식품회사로서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선포식을 2021년 7월 1일 가졌다. 'Better Tomorrow, Smile JOIN' 슬로건과 함께 'JOIN(영문)'과 '스마일(로고)'이 합쳐진 새로운 CI는 안전하고 최상 품질의 먹거리 제공을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BI는 그동안 조인을 대표하던 '누리웰(Nuriwell)'를 대신해 'Nutrition', 'New', 'Nature'를 의미하는 'Nu:table(누 테이블)'로 바꾸어 새롭고, 신선하며 영양 가득한 조인만의 차별화된 먹거리를 고객 식탁에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CI와 BI를 통해 전통 계란 대표 브랜드로서 '조인(JOIN)'을 소비자에게 더욱 친숙하게 전달하고, 맛과 건강을 담은 혁신적인 종합식품 브랜드로 거듭 나가고자 한다.